

회개하는 아들과 반항하는 아들

성경말씀: 눅15:11-32

복음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 준다. 어떤 사람이 구원받고 성장할 수 있는지 보여 준다

즉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좋은 성도가 되려면 읽고 적용해야 한다.

대다수 유대인들/종교인들: 위선과 탐욕, 회개 무관심, 교만, 자기들의 기준인 종교 행위로 사람 판단

본인들만 의롭다고 생각하고 기준에 다다르지 못한 사람들은 낙오자 취급

본인들의 눈에는 들보, 다른 사람의 티만 본다. 이것이 위선이다(마7:3-5). 지옥 행, 성장 불가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을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다. 속 중심, 세리, 창녀의 절박한 상황, 애태우는 사람 죄인이라는 '어쩔 수 없는 상태' 인지, '지금 그대로 나오니 받아 주십시오.'

예수님 당시에 세리들과 창녀들, 대부분의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죄인임을 알고 고백하며 나아옴.

바리새인들은 절대로 그리하지 않음, 오히려 예수님을 비난함

15장에는 잃어버린 양, 동전, 아들의 비유가 있다. 예수님의 포인트(눅19:10)

유대인 지도자들의 무지: 예수님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

그 잃어버린 자를 죄인이라고 함, 죄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성장 불가 구원의 두 요소: 1. 하나님이 잃어버린 양과 동전을 찾아 나신다. 2. 잃어버린 아들 비유: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와야 한다. 이 둘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회개하는 아들과 반항하는 아들>

잃어버린 양(4-7)

양은 어리석음으로 길을 잃는다. 타고난 본성, 그래서 목자가 필요하다(사53:6).

목자는 길 잃은 양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 험한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 나서고 드디어 찾아낸다.

즉 목자에게는 한 마리 한 마리가 다 중요하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정, 아들 하나님이 목자로 오심

잃어버린 동전(8-10)

부주의로 동전을 잃는다. 드라크마 동전에는 왕의 형상이 있다. 동전을 잃어버리면 왕의 형상이 드러나지 않는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으나 죄로 인해 형상의 일부가 망가짐. 여인이 잃어버린 동전을 찾듯 성령님은 진리의 빛으로 어둠을 물리치고 찾아낸다. 그래서 우리는 형상을 회복한다.

잃어버린 아들(11-24)

하나님이 직접 잃어버린 양과 동전을 찾아 나서는데 그러면 누가 그분께 발견되어 구원받을 수 있는가? 양과 동전 비유는 하나님이 찾아 나서는 일에 초점을 두고 있다. 아들 이야기는 사람이 해야 할 일 100마리, 10개의 동전, 한 아들로 대상이 좁혀짐,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

두 아들을 둔 아버지(11), 작은 아들이 아버지 곁을 떠나 혼자 마음대로 살기로 작정함

자기 몫을 받아서 먼 나라로 떠나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며 재물 허비, 드디어 궁핍하게 됨(12-14)

먹고 살기 위해 그 나라 국민에게 붙어 돼지를 치: 최악의 상황(15)

돼지들이 먹는 곡식 껍질을 먹으려 하나 아무도 주지 않음(16)

드디어 제 정신이 들(17): 아버지 집은 얼마나 풍족한가! 나는 굶어죽는구나!

회개(18-19), 구원에 필요한 일 두 가지, 아버지에 대한 믿음과 회개

드디어 돌아가니 아버지가 그를 보고 달려가 껴안고 입을 맞춤(20): 달리는 일은 혼치 않음

아들의 회개 고백(21), 아버지의 영접(22-23)

아버지의 선언(24)과 기쁨(25)

사람이 구원받는 과정이 그림으로 자세히 묘사되어 있다

1. 사람이 하나님 곁을 떠나고자 하고(의지) 실행함: 아담과 이브 이후의 모든 사람의 특징(창3:4-5) 아이들도 악을 가르쳐주지 않아도 한다. 사람보다 물건, 의무보다 쾌락, 근처 기쁨보다 먼 곳 쾌락
2. 먼 나라로 떠나 흥청망청 살다 보니 최악의 상황, 파산, 죄의 번민, 제정신, '영혼의 어두운 밤' 탐욕을 부렸지만 그것이 삶을 윤택하게 하지 못함(눅12:15)
3. 믿음과 회개, 아버지 외에는 답이 없다. 4. 결국 실행(이것이 참된 회개), 5.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영접(요3:16; 뱀후3:9), 6. 종에서 아들로(우리의 기대 이상의 보상), 롬8:15-17의 외침, 시

103:10-14, 7. 집안의 기쁨

4. 자신의 상태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탕자가 바로 오도가도 못 하는 잃어버린 양이며 동전이다. 이 아들이 아버지의 형상을 되찾는다.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
5. 예수님의 비유의 결론: 하나님이 직접 찾아 나서지만 오직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만 발견된다. 세리들과 창녀들, 영이 가난한 자들이 바로 이 작은 아들
6. 이들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극심한 빈민, 영언의 어두운 밤, 자기를 낳은 아버지 외에는 구원자가 없음을 믿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기쁨을 누린다.
7. 우리는 어떤가? 영혼의 어두운 밤을 통과한 적이 있는가? 창조자 아버지를 믿는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가?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했는가?

반항하는 아들(25-32)

탕자 이야기를 듣고는 바리새인들의 안도, 자기들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났다. 그런데 끝이 아니다.

세리들, 죄인들은 육신적인 죄, 저차원의 죄, 바리새인들은 영과 마음의 죄

큰아들은 들에 있다가 집에 오니 음악과 춤추는 소리(25)

종의 대답(27), 형의 반응(28), 아버지의 간청(28)

형의 대답(29): 나는 깨끗하게 법대로 살았습니다. 제게 보상이 없었습니다. 망나니로 살던 동생이 오니 송아지를 잡았습니다(30). 그에게는 장점이 있었다: 열심히 일하고 불명예 No!

아버지의 대답(31): 다 네 것이다. 그래도 죽은 네 동생이 왔으니 우리가 기뻐해야 한다(32).

형의 문제: (1) 율법의 가장 큰 명령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몸 같이 사랑하는 것(마23:34-40) 그런데 그는 자기 동생이 죽을 고생을 한 뒤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오히려 그를 미워하거나 무시한다. 겉으로는 거룩하고 깨끗한 것 같은데 속은 사랑이 없고 가증하기 그지없다.

(2) 사람을 살리는 데는 관심이 없다. “나는 의롭게 살았습니다. 저 사람과는 비교하지 마십시오.”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 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다(눅18:9-14).

여기에도 거짓이 있다: 명령을 어긴 적이 없다(29): 바로 지금 어기지 않았는가? 교만과 위선

(3) 아버지를 섬긴 목적이 무엇인가? 그는 아버지가 좋아서 섬긴 것이 아니라 보상을 받으려고 섬겼다. 그의 모든 종교 행위는 무언가 보상을 받는 데 있다. 성숙한 성도는 그냥 아버지가 좋아서 그분만 믿는다. 보상은 주시면 감사, 그러나 보상 때문에 좋아하지 않는다. 신랑 신부 돈 때문에 결혼

(4) 아버지와 동생 멸시: 아버지의 간청(28)을 거절하는 것 자체가 아버지를 멸시하는 것

동생을 멸시한다: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아버지의 이 아들(30)

동생의 부끄러움을 들추어내며 동시에 이것이 아버지의 잘못이라고 지적한다(요일2:9-11).

(5) 동생과 아버지에게 화를 낸다: 자기만 옳다고

화는 내야 할 때 내야 하지만 올바른 사람에게 내면 안 된다.

주님의 말씀: 나의 모든 것이 원래는 큰 아들의 것이다: 바리새인들, 율법 박사들

그러나 그들은 이런 것을 누리지도, 유용하게 사용한 적도 없다. 기쁨이 없다.

유대인들의 공통적인 문제(롬9:31-33; 10:3). 롬2:4

하늘 아버지는 이런 아들을 설득하려고 지금도 기다리신다(32). 우리는 어떤가?

우리의 교훈

자식들을 사랑으로 키우는가? 죄를 지어도 돌아오게 키워야 한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성도들을 사랑으로 대하는가?

하나님이 받아주신 자들을 용납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질서를 파괴하도록 두라는 말이 아니다.

큰 아들만 빼고는 15장의 모든 사람이 기쁨을 누렸다. 예수님과 기쁨을 누리는 믿음 생활을 해야 한다.

주님을 섬기는 이 생활이 의무인가, 기쁨이 넘치는가?